

#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

신열도 (申悅道)

##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	
저자	성명	신열도 (申悅道)
	자	진보 (晉甫)
	호	난재 (難齋)
판사항	筆寫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7 세기 1621.12.15 ~ 1654.12.01	
권수		
책크기	20×20 cm	
사부분류	관직일기	
기타사항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후손가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해제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는 나재(懶齋) 신열도(申悅道, 1589~1659)의 관직일기를 그의 종손(從孫)되는 사람이 초록(抄錄)한 것이다. 모두 125면인데, 1면에 20행 30자로 보통의 1면 200자로 환산하면 375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일기는 세자(細字) 해서(楷書) 필사본이다.

일기의 기록은 1621년 12월 15일 북로(北虜)가 용천(龍川)으로 침입하고 약탈(掠奪)을 자행한 사건부터 기술하기 시작하여, 병자호란(1636)을 겪은 뒤 1654년 12월 1일의 "이자신(李子愼)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관동(關東)에는 적설(赤雪)이 오고, 영남(嶺南)에는 해적지이(海赤之異)가 있었다고 하였다."는 등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에서 그치고 있다. 중간에 더러 상당

기간 중단 또는 누락된 경우도 있다.

저자 신열도는 자가 진보(晉甫)이며 아곡(鵝谷) 사람이며, 교리(校理) 신달도(申達道)의 아우이다. 용모는 백옥(白玉)과 같고 성품은 침중(沈重)하여 남달랐는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 배웠다. 총명하여 10여 세에 이미 경사·백가에 통달하고 1624년 문과(文科)에 올랐으며, 1647년에 장령(掌令)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능주목사(綾州牧使)가 되었다. 나이 71세에 생을 마쳤다. 저서에 『선사지(仙槎志)』, 『문소지(聞韶志)』가 있다.

일기는 문장을 아주 간략하게 썼으나, 인명(人名)은 성이나 이름자를 줄여서 쓴 곳이 많고, 이두(吏讀)도 섞였으므로 쉽게 읽어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나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사료(史料)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